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설교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 - 10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야베스는 유대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가 난산을 통하여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니. 이같이 어려움 가운데 얻은 아들이기에 그의 부모는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야베스의 이름을 생각해 보자

슬픔이 크면 기쁨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더욱 귀한 존재였습니다. 맹렬한 폭풍이 깨끗한 태양 빛을 가져오듯 눈물의 밤은 기쁨의 아침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에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고롭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의 일은 수고로운 것이며 그러므로 그 대가는 더욱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마다 수고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열두 번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은 난산을 하여 막내 아들을 낳은 후 목숨이 끊어졌고 야곱은 후에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마다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2.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브니엘에서 기도의 밤을 지낸 후였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영예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영예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입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복이나 가산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마치 받은 것으로 압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줄 알았습니다. 옷사는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여 법정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역대상 13:10).

(1)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이 기도는 땅을 넓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곧 가나안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다 쏟아버렸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그 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온 복,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복, 영생을 주신 복,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하

시어 겸손하고 순종하는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야베스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2)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시 119:3), 절대 소유주로 다스리시는 손(욥 5:18), 충분히 주시는 손(시 95:7), 구원의 손(출 32:11), 고치시는 손(사 2:15), 능력의 손(단 4:35), 높이시는 손(사 6:2), 안전 보장으로 지키시는 손(요 10:28-29)입니다. 야베스는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주님의 손으로 자신을 도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악을 피하지 말고 대항을 하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근심에서 자유 하게 됩니다.

3.기도 응답을 받은 야베스를 생각해 보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분명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간구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위해 기도를 했으며,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들 기도의 공통점은 모두가 겸손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사려 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시간에 인생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큰 소망을 품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희망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른 것, 거룩한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우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므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복인지, 혹은 인간적인 복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이 충분한지 무게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슬픔의 밤이나 고난의 밤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함으로 그가 받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2004년 1월1일 0시 본당에서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쉽 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덧 우리가 허락받았던 2003년 일 년의 기나긴 시간을 영원한 과거 속으로 보내게 된다. 또한 새로운 각오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사후 후로 성큼 다가와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기 그 지없는 지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앞으로 나와 참 평안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교회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기로 하여 12월31일(밤)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각 부서별 찬양 및 촌극대회를 준비하여 각 부서별로 5-7분 정

도의 촌극이나 찬양을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며 시상도 하게 된다. 찬양 및 촌극대회가 끝난 후 11시 30분부터 소등하여 빛 되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회개와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이어진다.

0시 정각 어둠을 깨고 나타나는 빛으로 될 신년 0시 예배는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11시30분 이전에 입장을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하며 송구영신 예배는 촛불을 켜고 드리게 된다. 또한 이날은 송구영신예배와 찬양 및 촌극대회 준비관계로 수요1부와 2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장로 권사 직원 은퇴 및 장로안식년 감사예배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평생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시다가 교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4년 일년간 안식년을 맞이하는 장로님들을 위한 장로 권사 직원 은퇴식과 장로 안식년 감사예배를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된다.

오늘 은퇴하시게 되는 분들은 시무장로로 계신 김태기 장로와 시무권사이신 유병욱, 최금자, 이남복, 한정원, 최영순, 양순임 권사 그리고 직원으로 김찬용 집사 등이며 안식년을 맞이하는 장로는 성경준, 김영준, 이영기 장로 등 3분이다.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서울교회 은퇴 장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된다.

1월 첫 주 신년감사 예배 · 성찬예식 공동의회 및 순결서약식도 가저

우리교회는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되는 1월4일 I II III부 예배를 새해의 희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성찬예식도 함께 드리게 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순결케 유지하기를 서약하는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순결서약식의 오리엔테이션은 12월31일(수) 오후 7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2004년도 서울교회 청지기 수련회

2004년 1월 5일(월) ~ 11일(주일) 1주일간

2004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될 청지기(제직)들의 수련회가 오는 2004년 1월5일(월)부터 1주일동안 열리게 된다.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에 열리며 강사로는 요일별로 정해진 담당 교역자가 인도하게 된다. 청지기 수련회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요일별 청지기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1.10(토)	1.11(주일)
5:00~5:30	특별 새벽기도회(강사: 담당목사)						청지기 헌신 예배 및 제직 수련회
	윤영국목사	김은호목사	이규정목사	오정식목사	이상득목사	한성은목사	
5:40~6:20	예배위원의 역할과 자세 (윤영국목사)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 (김은호목사)	포교적인 인도와 순영 (이규정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오정식목사)	교회 봉사자의 사명(이상득목사)	종직자의 사명(한성은목사)	인간성도(이상득목사)
대상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전도인 임원	교구일꾼	멀티미디어 순례자, 자원 식당 직원	장로, 권사, 인수집사	청지기 전원

2003년 전도상 시상 · 주간 성경공부 수료

200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 중에 2003년 전도상 시상을 한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교회는 전반기에 675명 등록(70인 전도대 196명 등록)하였고 후반기에도 825명(70인 전도대 389명 등록)이 등록하여 올해 총 1,500명(70전도대 585명 등록)이 등록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다. 일 년 동안 5명 이상 전도한 전도자 현황(괄호 안은 2003년 누계)은 다음과 같다.

전도상 명단

- 심명숙조 (심명숙,김영희,하영숙,박진경) ···· 114명(124)
- 박이선조 (박이선,장정화,송인숙,임명숙,최미경) ···· 98명(148)
- 김찬진조 (김찬진, 하옥봉, 현기욱, 조영자, 배경숙) ···· 23명(23)
- 김정애 ···· 21명(26), 천인숙 ···· 21명(21)
- 이순희조 (이순희, 장기숙, 강정숙) ···· 19명(40)
- 전하비 ···· 17명(34), 김동진조 (김동진, 김경순) ···· 16명(22)
- 최향봉조 (최향봉, 함언호) ···· 14명(23)
- 최광성 ···· 8명(8), 박준자조 (박준자, 전숙향) ···· 7명(10)
- 이미연조 (이미연, 양호선) ···· 7명(8)
- 김은태 ···· 6명(12), 한은종 ···· 6, 이은희 ···· 6
- 남태영 ···· 6, 김영자 ···· 6, 전기섭 ···· 5
- 안미경조 (안미경, 배병이) ···· 5명(5)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명단

- 1교구:김경애 박정설 박현영 서중화 임송자 임옥균 현기욱(7명)
- 2교구:김경희 오충례 이자혁 정유선 최규초 최난수 최형열(7명)
- 3교구: 김유경 이경구 이봉규 이순례 이재봉 정병무(6명)
- 4교구: 김복녀 김혜경 박민숙 이승민 이승희 임훈규 정경자 홍광숙(8명)
- 5교구: 김만선 김중근 남옥진 박창희 백수남 안창휘 유후자 윤용근 이광림 이인화 이윤영 임선철최근자 최학인 최혜순(15명)
- 6교구: 김경옥 김규희 서명조 이영옥 장양일 최일춘 한금희 허인숙(8명)
- 7교구: 김용주 배영애 윤은식 임순자 임윤자 진경옥 함은희(7명)
- 8교구: 고영길 김영정 김현주 이현진(4명)
- 9교구: 강정옥 김명희 김진숙 김찬용 송옥혜 유묘종 윤봉준 이점숙 최경애 최정숙 최정자(11명)
- 10교구: 박연순 윤찬오 이영희 진선자 최주성(5명)
- 11교구: 김양숙 백영희 유숙인 이옥희 이홍기 장정화 전백호 정연택 조옥섭 조정옥(10명)
- 12교구: 김형택 남정열 서희숙 여옥기 이정연 임상현 정희순 황정옥(8명)
- 13교구: 김은태 이난화 이순창 주동재 최성옥 단금희 함언호(7명)
- 14교구: 김인숙 김종자 남태영 박종숙 신재을 안선희 유성일 한광마(8명) 이상 111명

새해에 바뀌는 것

- 예배 시 경배찬송이 4장에서 6장으로
- 3부(창년예배)시 입례송을 13장에서 53장으로
- 성탄절 감사예배 1회(오전 11시)를 2회(오전 9시, 11시)로 나누어 드린다.
- 1부 예배 헌금순서서는 첫 주-유년부, 둘째 주-초등부, 셋째 주-중등부, 넷째 주-고등부, 다섯째 주-독창자(솔리스트)순으로 한다.
- 에바다부 독립예배를 11시20분에 오후 예배를 3시에 603호실에서 드린다.
- 유아부실과 유치부실이 바뀐다. 유아부: 702호실 -> 706호실 유치부: 706호실 -> 702호실
- 세례 준비반을 새가족부내에 신설하여 8주간 진행한다.(새가족부 수료자는 학습교육 이수자로 간주한다.)
- 웨스트민스터 소규모 문답반 수료자도 교사나 다락방장 지원자는 교사양성반, 다락방장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주일 점심식사를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가정은 현재 50만원으로 하였으나 물가상승과 식사인원 증가로 100만원으로 한다.(단 두 가정이 합쳐서 할 수 있다. 조정은 사무국에서 한다.)
- 결혼식 식사는 1인당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한다.
- 디아스포라반 지도 교역자 박광일 전도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김인제 선생,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로 강민정 선생을 초빙한다.

<새로 부임하시는 분들>



박광일 전도사

1974년 생
1995년 평양 김형직 사범대학 졸업, 현 장신대 신대원 재학 중
(디아스포라반 지도 교역자)



김인세 선생

1959년 생
1988년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2003년 미국 일리노이스대 합창 지휘과 박사과정 수료
현 이화여대 출강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강민정 선생

1972년 생
199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1999년 독일 Detmold 국립음대 졸업(Diplom 취득)
2001년 독일 Detmold 국립음대 졸업(Konzertexamen 과 정 졸업)
현 연세대, 한국 예술 종합 학교 강사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2003년 서울교회

1. 파이프 오르간 봉헌과 오르간 심포지엄



지난 97년 당회가 구입하기로 결정한 파이프 오르간이 6년여 만에 마침내 완성됐다. 총 무게 32톤에 총 3,827개의 파이프가 장착된 이 대형 오르간은 6명의 제작자들이 4년에 걸쳐 제작한 것이다. 교회는 5월 28일 첫소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음식(獻音式)을 가진데 이어 11월 23일엔 오르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가졌다. 또 앞서 11월 21일부터 이틀간 세계적인 오르간 전문가들을 초빙해 국제오르간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줄리아드 음대 Gerre Hancock교수와 미국 Wheaton대학의 Edward Zimmerman박사, 연세대 음대 광동순 교수, 미국 Ypsilanti First 장로교회의 음악감독인 이미경 박사, 또 우리교회 오르간을 제작한 크라이스 회사의 Phillip Klais사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들의 오르간 리사이들도 함께 열렸다.

2. 청교도 신앙세미나

1903년 우리 민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꼭 백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우리 교회에서는 청교도 신앙세미나가 열렸다. 개혁주의 신앙과 청교도 신앙이 절실한 조국과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은 미국 이민교회들의 현실 앞에서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취지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 미국 동부지역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우리교회 부설한 기독교갱신연구원(KIMCHI)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

미나에는 미국에서 방한한 한인복회자 71명과 한국거주 목회자 등 백여 명이 참석했다.



3. 전도학교, 70인전도대 통한 전도활성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도학교가 올해 크게 활성화하면서 복음전파의 좋은 인력자원을 양성하였다. 12주과정의 전도학교는 올해에만 네 기(4,5,6,7기)에 걸친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이들이 가세한 70인 전도대는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활발한 전도활동을 벌였다. 특히 수요일 밤과 토요일 낮에 집중된 노방전도를 지속적으로 벌였고, 교회주변에 거주하는 만여 세대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축조전도를 사상 처음으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들의 헌신 덕에 연초에 세웠던 500명 전도 목표가 초과 달성되



현재 6백 명에 육박하는 전도열매를 거두게 됐다.

4. 열린 바자 열매로 지역사회 구제

9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린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바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우리교회는 판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강남구청에 위로금과 위로품을 전달했다. 환경미화원 575명에게는 보은 잠파 345벌, 운동화 230족(시가 6천9백만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독거노인과 탈북자, 소년소녀 가장 등 160명에게는 한 가정당 10만원씩 총 천6백만원의 위로금을 전

달했다.

5. 제36회 메시아 합동연주의 주관

메시아 합동연주회는 해마다 한국교회들이 연합하여 대할창단을 구성하고 웅렬의 메시아를 협연하는 행사다. 36회째를 맞은 올해는 특별히 이 행사의 주관을 우리교회가 맡았다. 8월초부터 연습을 시작해 넉 달여에 강행군 끝에 12월16일 올림픽 홀에서 그 막을 올렸다. 4백여 명의 메시아 합창단은 우리교회 음악감독 백효숙 장로가 재변역한 메시아 곡을 열창하면서 3천여 명의 관중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10대 NEWS

6.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 창단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축구를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고자 서울교회 유년부는 2월 25일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하고 선수선서식을 가졌다. 필그림 유소년축구단은 매주 토요일 축구를 통해 전도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를 끼친 강해였다. 5월 10일에는 당회원 부부와 교역자들였다. 은 종강을 감사하고 강사로 수고한 이종운 목사와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7. 로마서 강해 종강

1998년 6월 28일부터 매 주일 찬양예배 때마다 계속된 로마서 강해가 만4년 9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30일 마침내 종강을 하였다. 로마서 강해는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독교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은혜

8. 제5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전 성도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인 한가족 한마음 축제가 5월 8일 서울 일원동 밀알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열린 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천여명의 성도들이 참가해 공굴리기와 줄다리기 등 14개 종목을 놓고 청백 양 팀으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또 행사 전후와 막간에는 청년부, 에바다부와 주일학교 학생들, 경로대학 노인들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3명의 성도를 중보기도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기도합주회가 진행되는 등 온 성도들이 은혜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

9. 캄보디아 단기선교



서울 교회 단기선교팀은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영화 '킬링필드'로 유명한 나라 캄보디아로 제3기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모두 23명으로 꾸려진 이번 단기선교팀은 열흘간 프놈펜과 공봉툼, 프스라 등 3개 지역을 돌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 성경공부, 이미용, 의료 봉사 등의 활동을 펼쳤고, 가는 곳마다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빈곤과 영적침체에 허덕이는 캄보디아에 새로운 희망을 보고 돌아왔다.

10.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노회를 통해 헌의함으로써 제 87회 총회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재번역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위원과 전문위원이 선정됐다.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재번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정됐고 몇 차례의 모임 끝에 전문위원들은 재번역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총회에 제시하였다. 3월 17일엔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이어 제 88회 총회에서는 재번역위원회가 제시한 번역문이 최상의 번역이라는 칭송을 받게 됐다. 그러나 총회는 타교단과의 연합운동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타 교단과 협의를 추진키로 하고 총회는 공식적 채택을 보류하였다. 이종운 목사는 장로교 신학회와 한기총 등을 통해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이 일을 성사하기로 했다. 김민철(편집부)



지난 한해 감사드립니다



이성득 목사

믿음의 여정을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 떠오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너무나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묵묵히 따르려는 사랑부 선생님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앞선 교구로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13교구 식구들, 아울러 서로 간에 넉넉한 사랑의 줄로 피를 띠며 한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14교구 식구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주종되며 성도를 섬기기 위해 애쓰는 예배위원들, 차량부 식구들 모두 모두 고맙고 감사한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됩니다.

윤영국 목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한지체가 된 서울교회를 사랑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보여준 모든 주의 동역자들의 사랑과 섬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함께 전국가는 순례자 길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삶이 성숙하고 풍성해진 한 해였습니다. 감사가 넘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참맛을 보고 살고, 멋지게 살고, 감동의 삶으로 가득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모이는 다락방, 복음을 전하며 성장, 성숙하는 교구가 2004년에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삶 속에서 발견하고 간증하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예수님 믿는 맛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기적이구나! 모이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매 주일, 매 시간, 매 모임 때마다 돌아설 때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한상은 목사



지난 일년 동안 참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부교역자로 해야 할 역할들 가운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정식 목사



지난 시간 사랑으로 감싸주신 3, 4교구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잊지 않겠습니다. 늘 교구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교구장 장로님과 간사님,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 다락방을 돌보시는 다락방장님, 부다락방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남이 기다려졌던 고등부 선생님들, 여러분의 헌신에 가슴이 찡할 때가 많았습니다. 서울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매주 만났던 순례자 식구들,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멀티미디어봉사단 식구들, 신·구의 조화 속에서 함께 했던 만남들이 잊혀지지 않

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식 목사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주신 모든 성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구를 헌신적으로 돌보신 교구장님, 다락방장님, 그리고 교구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 분들의 교구에 대한 헌신적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른 새벽에 슬픈 가정을 위로하는 갈렙 찬양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년부 1, 2부 교사와 장년 7반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내년 한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규현 목사



다사다난 했던 한해도 저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종운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예배다부가 발전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배다부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에도 교회와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혜영전도사



2003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부서에서 함께 마음과 무릎을 나누는 고마운 일들, 손가락 열이 모두 소중할 것처럼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해오던 주중봉사까지도 중단하고 새 가족들이 안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교사는 가족모임에서까지 전회심방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감탄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옆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고가는 이름을 들으니 낮은 새가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양육한 분들을 밖에서 따로 만나 수료 후에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구습의 쇄신을 끊고 하고 한 가정을 구원한 e-mail 교사, 교역의 통신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젊은이들의 발목을 복음의 띠로 묶은 hand-phone 교사,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나 모든 교사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규정 목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감사합니다'라는 말 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늘 든든히 서서 제 할일 감당하시는 9교구 가족들,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뜨거운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시는 10교구 형제자매들, 섬기고, 사랑하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모습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신혼가정부, 아기가 자라듯이 할 듯 모르듯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샘 곁에서 뿌리내린 무성한 가지와 같이 날마다 아름다운 하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한 없이 부어도 모자라는 사랑으로 쉼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느라 1년을 하루같이 뛰어온 유치부 교사들, 아이들의 눈빛처럼 당신들의 땀방울은 하늘에서 빛난 상급으로 쌓일 것입니다.

터질 듯한 사랑의 가슴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신 전도위원회 모든 섬김이들, 70인전도대원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윤호 목사



목사로서 여러 교구에 대한 감사의 글을 쓰려고 하니 바울 서신의 인사와 글이 더욱 가슴에 외닿습니다. 저 역시 교구와 교회학교 여러 부서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헌분 헌신의 이름을 머리 속에 떠올릴 때 바울처럼 한편의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글을 쓰며 마음 속에 각각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깁니다. 또 어떤 분들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해에는 더욱 여러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리라고 다짐해

장로은퇴식을 준비하며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세월이 살 같이 흘러 어느덧 내 나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고 정년을 맞아 서교교회 시무장로의 직임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하고 허물투성이인 이 부족한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무장으로 지명해 불러 주셨건만 그간 능력이 부족하여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실수한 일들이 많았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고 누를 끼친 일들이 허다했음을 깊이 후회하고 회개 합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사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감아 주시고 덮어주시

다회장님과 동료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는 고향인 별교제일교회에서 총각 집사로 날밤을 세워가며 프랑카드를 써서 걸고 그림을 그려 붙이며 원지를 긁어 성가집을 만들고 교회의 각종 일지를 프린트하여 기록하고 주일학교 교재인 차트를 그리며 교회에 장식을 그려 붙이던 일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방향도 없는 열심이었으며, 1980년 4월 24일에는 광주남부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으나 신학의 바른 정립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10월 6일 신앙의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로 이종윤 목사님을 모시고 길 잃은 양들 168명이 마음과 뜻을 모아 50일간을 기도하여 11월 24일에 1,860명의 등록 교인으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서교교회가 출범 하게 되었고, 그간 논현동 성전시대와 반포동 예배당 시대를 거쳐 대치동의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새 성전을 허락 받기 까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기적적인 축복을 받아 온 12년간의 신앙생활은 뜻 깊고 값진 나의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바른 지도를 받고 수련을 거쳐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과 방법을 알게 되자 정년이 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회가 왔을 때에 더 열심을 갖고 충성하지 못했던가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나 때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회가 왔을 때에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므로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시기 바라면서 가슴에 간직한 말씀한 구절 오히려복음 9장 4절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서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간단한 은퇴의 소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후 2003년 12월 28일
은퇴장로 김 태 기

순결서약식을 앞둔 후배들에게

나의 순결반지

노재균 (대학부)

나의 순결 서약 반지 안 쪽을 보면 95. 1.1이라고 적혀 있다. 중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순결 서약식을 하였으니 벌써 9년이 다 되어가는 셈이다. 이른바 순결 서약 원년 멤버이다. 비록 그 때 맞춘 순결 서약 반지는 지금 나에게서 너무 작아서 대신 형의 반지를 끼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이 순결 서약 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끼고 다녔다.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던 순결 서약 반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순결 서약 반지를 보고서는 커플링 이냐고 물어보았다가 그것이 순결 서약 반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 모두 웃으면서 “무슨 남자가 순결이냐”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다가는 결국 순결맨이라고 놀리면서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품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무슨 순결이냐고 말하지만 여자에게 순결을 요구하면서 정작 남자 자신은 순결하지 못한 것은 구시대

적인 사고방식이며 당연한 도리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품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기회도 별로 없을뿐더러(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랬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반면에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험을 많이 당한다. 마음의 순결을 잃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순결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결서약 반지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순결의 수준도 단순히 배우자를 위한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결 서약식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이번 순결 서약식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도록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

우리교회 교육 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과 2국(중등부, 고등부)에 속한 학생들의 졸업(수료)식이 오늘 1부 예배 후 부서별로 있다.

고등부, 노숙자를 방문한다.

고등부는 2004년 1월 3일 토요일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를 방문한다. 광야교회는 영등포역 옆의 쪽방지역에 위치하여 1987년부터 이 지역의 쪽방주민들과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섬기며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교회이다. 고등부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생필품(라면, 비누, 치약, 컵, 수건 등)을 모으고, 모아진 물품은 1월 3일 전달할 예정이고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월3일(토) 당회원들과 교회직원들을 초청 신년 사무시 검 하례회를 갖는다.
- 이사:이기택·김정남 집사(6교구) 강서구 화곡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박정일·김명순 성도(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홍순석집사·유명희 집사(1교구) 국제아파트 2-201
- 금주의 식사: 원용구 집사(박이전 집사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금 오후 7시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ctn.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늘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등반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주 안에서 송구영신(送舊迎新)할 수 있도록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